

중앙한방병원 원장
임장신

중풍과 술

술은 깊은 산 속에 원숭이가 빻은 술이 예회로 등장하듯이 과실이 저절로 발효된 것을 먹어본 결과로 추측이 되어진다. 역사기록으로는 이집트에서 B.C.3000년경 맥주양조기가 있으며, 동양에서는 누룩을 사용하여 술을 빻은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동명성황의 건국담에 술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술은 유사 전부터 약 또는 식품으로 애용되었다고 추측된다.


음주문화는 종교적으로 금기시하거나 식량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식주가 여유가 있는 경제적 조건이 좋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적인 부작용은 오래 전부터 문제시되어 금주가 권장되어 왔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알코올의 작용은 대뇌의 정신기능인 억제력을 마비시켜 정신적 억제에서 해방시키며 이 작용의 결과 정신 스트레스의 제거, 고민의 경감, 기분과 감정을 쾌활하게 하여 즐거운 기분이 되고 대인관계도 부드럽게 되어 사교적으로 되는 좋은 점이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단기간내의 적절한 알코올일 때 달성되고 과량과 장기간의 음주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한방의 고서인 식경(食經)에서는 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술은 그 맛이 쓰고(苦味), 달고(甘味), 시다(酸味). 그 성질은 매우 열성이며 약간의 독이 있다. 주로 약으로서 복용하면 모든 병사를 물리치고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기운을 제거하며, 혈액을 잘 통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근심걱정을 없애준다. 많이 마시면 정신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 취하여 도를 지나치게 마시면 생명의 근원이 손상된다」고 하였다.

적당한 음주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과음은 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장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술은 간에 나쁜 영향을 미쳐 간염이나 알콜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간경화나 간암의 원인이 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 동맥경화의 주원인이 된다. 또한 적당한 음주는 혈액 순환을 돕지만 혈관의 탄력을 약화시켜 고혈압을 유발한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동맥경화증 등은 중풍과 직접관련이 있으므로 술은 중풍 유발의 가장 위험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상담문의 : 032-5000-176